

5·18 알리는 프랑스 대학생들...수년째 다큐 제작

프랑스 대학생들이 지난 2018년부터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세계에 알리고 있다.

프랑스 파리 구스타브 에펠대학 '웹과 인문학' 수강생들은 석사과정을 마치려면 필수적으로 한국 역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하는데 광주 5·18을 주제로 선택하고 있다.

9일 광주 영화영상인연대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구스타브 에펠대학에서 '웹과 인문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과 교수 등 50여명이 지난 8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을 이끄는 교수는 프랑스 구스타브 에펠대학 현대사 종신 학과장인 티에리 봉종 (Thierry Bonzon·61) 교수다.

봉종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대학 석사과정 졸업 요건에 한국 역사를 주제로 졸업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지정하고 있다.

석사과정 졸업반 학생들은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등 한국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를 선정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에펠대학은 지난 2013년부터 부산 동의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4~5명의 프랑스 학생들로 이뤄진 팀이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면, 동의대 영화학과 학생들이 제작을 도와주는 식이다.

파리 에펠대학 티에리 봉종 교수 2018년부터 학생들과 광주 방문 여순사건 등 석사 졸업작품 발표 "역사왜곡 여전...단호히 대처해야"

내년 파리에 5·18사진전 개최 논의 학생들 "5·18 시민 연대 발견 감격 세상 사람들이 광주의 역사 알아야"

이날도 영화를 전공하고 석사과정 졸업반인 페니스텐케스트(Fanny Steenkeest·여·25)와 아질린 슈뉴(Azeline Chenu·여·23)씨는 5·18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5·18재단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 공개된 5·18관련 16mm 필름 영상을 보고 5·18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스텐케스트씨는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준 5·18 영상을 보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며 "군인들에게 일반 시민들이 무참히 맞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광주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5·18 다큐제작의 이유



프랑스 구스타브 에펠대학 티에리 봉종 (Thierry Bonzon·61) 교수가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5·18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를 밝혔다.

슈뉴씨는 "5·18에서 무엇보다 시민들 간 연대를 발견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며 "내일 다른 팀원 2명이 입국하는데 이들과 같이 광주를 돌아다니며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다는 것이다.

봉종 교수는 "2016년부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광주를 방문해 5·18을 연구하고 있다"며 "5·18은 독재권력에 무너지기 쉬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역

말했다.

이들은 5·18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광주의 예술을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봉종교수는 "학생들이 구하는 자료, 내용의 깊이 등은 한국 학생들이 봐도 놀랄 정도다"라며 웃어 보였다.

봉종 교수는 한국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서도 특히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독재가 다시 나타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만큼,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모습이 세계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

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광주의 5·18은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국가에서 5·18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이 벌써 43주년이지만 아직도 왜곡이 심한 것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증언과 팩트가 나왔지만, 아직도 이렇게 왜곡이 심한 역사적 사건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며 "이럴수록 더욱 진실을 발굴해나가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유원씨나 특전사의 사죄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봉종 교수는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개인의 사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사과한다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5·18 기념재단을 방문해 내년 에 프랑스 파리에서 5·18 사진전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봉종 교수는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광주를 방문하고, 깊이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에펠대학 '웹과 인문학' 학과 홈페이지(<https://media.iguane.org/cmw/documentaires-interactifs/2022/>)에서 볼 수 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노재현씨 5·18민주묘지 참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56)씨가 9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비공식 방문해 참배

및 헌화를 했다. 노씨는 행방불명자 묘역과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광의 오빠인 김형영 열사, 이명자 전 오월어머니집 관광의 남편인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묘소를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5·18 민주 영령들의 희생에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꽃 피우길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국립5·18민주묘지 제공>

안타까운 죽음 2제

생활고 시달리던 5·18 유공자 어버이날 단독주택에서 고독사

5·18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동참했던 시민군이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8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5·18유공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7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지 최소 2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 정황이나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노환과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200여일간 투옥됐던 5·18유공자로 확인됐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합지(두꺼운 종이로 만드는 포장지의 일종)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5·18 때는 시민군의 치안을 유지하는 '치안유지단장'을 맡아 군용트럭을 타고 다니며 시민군을 정비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군법회의에 회부돼 계엄법 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이듬해 3월 사면돼 풀려났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 셋방살이를 하며 기초생활수급과 반찬 지원 사업, 독거노인 방문서비스사업 등 서비스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유일한 유가족인 사촌동생 B(71)씨는 "서울에 살면서 1년에 한번 정도씩 만나는 사이였는데, 지난해 이후로 소식을 없었다"며 "5·18때 고초를 겪었던 사촌형이 결국 5월에 떠나다니 운명이라는 생각도 들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사장 신호수' 알바 나선 20대 출근 첫날 화물트럭에 치여 숨져

제대 후 공사장 신호수 아르바이트에 나선 20대가 출근 첫날 차에 치여 숨졌다.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20대 남성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용정동 월출지하차도에서 신호수 A(23)씨가 60대 남성 B씨가 몰던 화물트럭에 부딪혀 병원에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광주에서 답양방면으로 가는 월출지하차도 2차선 입구에서 차량을 1차선으로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수석 쪽에 있는 서류를 줘다가 미처 신호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장마철을 앞두고 발주한 '신덕지하차도 등 8개소 집수정 준설 공사'의 일환이었다.

광주에서 나오자만 A씨는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지 2년째 군대를 갔고 지난 3월 제대했다. A씨 부모와 여동생은 그를 가족들에게 잘하고 애교가 많은 아들이자 오빠로 기억하고 있었다.

A씨 여동생은 "내가 무슨 장난을 쳐도 받아주고 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했다"며 "내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어버이날에도 알바를 한 것 같은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소식을 접한 친구들도 한달음에 장례식장에 달려왔다. A씨의 중학교 동창들은 "친구중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다"며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뽐냈는데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